

내현적 ·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이 준 득	서 수 균	이 훈 진 [†]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 유형을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로 구분하고 두 하위유형의 부정적 정서를 비교하였다. 부정적 정서관련 측정치에는 우울, 분노, 공격성, 적대적 자동적 사고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자기에 성향자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기개념 명료성도 측정하였다. 대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집단과 외현적 자기에 집단, 통제집단을 선발한 후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 우울 질문지, 상대-특성 분노표현 척도, 공격성 질문지, 적대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외현적 자기에 집단보다 더 우울하고 공격적이었으며 분노억제 수준도 높았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내현적 자기에 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자기개념 명료성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 집단을 구분하여 공격성 점수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을 때, 외현적 자기에 집단 중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공격적이었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에, 외현적 자기에, 자기개념 명료성, 분노, 우울, 공격성, 적대적 자동적 사고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훈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FAX : 02-880-6428 / E-mail : hjlee83@snu.ac.kr

자기에 성향자는 감정 변화가 심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대상이나 정보원을 깎아내리려는 동기가 높으며, 보다 공격적인 경향이 있다(Baumeister, 1997;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Emmons, 1987). Rhodewalt와 Morf(1998)는 자기에 성향자는 타인의 무시나 공격에 특히 취약해서 쉽게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화를 내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Akhtar와 Thompson(1982)은 자기에 성향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이나 열등감을 감추려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Chapman, Gratz와 Brown(2006)이 제안한 경험회피모형(experiential avoidance model)에 따르면, 외부 자극이 일으킨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개인이 적절히 조절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인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려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 쉽다. 자기에 성향자도 자존감 손상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과격한 분노 반응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우울감과 외로움을 덜 느끼며, 불안 및 신경증 성향과 역상관을 보인다는 다른 연구결과와 불일치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Carroll, Hoeningmann-Stovall, & Whitehead, 1996; Hickman, Watson, & Morris, 1996; Jackson, Ervin, & Hodge, 1992; Raskin & Novaceck, 1989; Sedikides, Rudich, Gregg, Kumashiro, & Rusbult, 2004). 자기에 성향자의 부정적 정서 특성 연구들 간의 불일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자기에 성향자들이 단일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인 집단들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초기 이론들 중에는 자기에 집단을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한 논문들이 있다(Akhtar & Thompson,

1982; Kohut, 1977). 그러나 많은 수의 경험적 연구가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Raskin & Hall, 1979)를 사용하여 DSM-IV에 기술된 외현적 자기에의 속성만을 측정하였던 면이 있다.

외현적 자기에의 특징은 거대 자기표상과 자기 과시적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현재 DSM-IV에 소개된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이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성공과 권력, 이상적 사랑에 대한 공상에 자주 빠지며,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바라며,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감하지 못하며, 거만하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며 거대화된 자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외현적 자기에와 유사하지만, 그러한 자기상이 상처 입는데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며 부정적 평가에 취약한 점에서 핵심적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위축되어 있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하고, 다른 사람 말의 비판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낀다(Akhtar & Thompson, 1982; Kohut, 1977).

자기에가 발현양상에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로 구분된다는 주장은 기존의 자기에 척도들간의 상관성이 낮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시사된 것이다(Emmons, 1987; Wink, 1991; Wink & Gough, 1990). 자기에 척도들을 요인분석했을 때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된다는 연구결과들(Hendin & Cheek, 1997; Mullins & Kopelman, 1988;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이 있다. 그 한 예로 Wink(1991)는

이 검사들 중 6개의 MMPI 자기에 관련 척도들을 요인분석 하였을 때, ‘거대성-과시성’과 ‘취약성-민감성’이라는 자기에 성향을 단일 증상군으로 보기에는 서로 상충되는 속성을 가진 요인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가 자기에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성격적, 행동적 특징들을 보인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어서 두 자기에 하위유형의 차별적인 특성을 찾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Robbins과 Dupont (1992)는 내현적 자기에는 자신은 적대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며 복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정서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관찰자 평정에서는 적대적이지 않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Rose (2002)는 외현적 자기에가 방어적인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는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더 역기능적이라고 하였다. Lapsley와 Aalsma (2005)는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 성향 집단이 각 하위유형의 특징을 더 강하게 나타낼수록 불안하고 강박적인 성향이 더 강해진다고 하였다. 반면, 외현적 유형은 신체적 불편감을, 내현적 유형은 대인관계 민감성과 우울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내현적 자기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Akhtar와 Thompson(1982)이 제안한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tic Scale: 이하 CNS로 표기)를 개발하였다. 정남운(2001)은 과민성 자기에 척도(HSNS; Hypersensitive Narcissistic Scale; Hendin & Cheek, 1997)를 번안하여 타당화 하

였다. 같은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자신을 더 외향적이고 자신감에 차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더 내향적이고 우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세란(2005)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황순택, 1995: 이하 NPDS로 표기)와 CNS를 이용하여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로 자기에 하위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 외현적 자기에집단은 자존감이 높고, 우울하지 않았던 반면,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외현적 자기에 집단보다 공격성과 적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애의 하위유형과 더불어 자기애성 성격의 부정적 정서특성은 자기개념 복잡성(Linville, 1985, 1987)과 같은 다양한 자기관련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계속되어 왔다 (Donahue, Robins, Roberts, & John, 1993). 최근에는 자기개념 명료성도 중요한 특성으로 고려되고 있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기개념의 구조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자신을 얼마나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자기개념이 내적으로 얼마나 일관되고 안정적인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Campbell, 1990). Campbell의 자기개념 명료성 모델에서는 자기개념 간의 통합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을 자기애성 성격에 적용하여 Stuck과 Sporer(2002)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자기관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자기관이 매우 긍정적이지만 모호한 사람들이 자존감에 더 큰 위협을 받는다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Campbell, Trapnell, Heine, Katz, Lavellee, & Lehman, 1996)를 이용해서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분노와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성이 자기개념 명료성에 따

라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격검사지(NPI;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Hall, 1979, 1981)로 측정된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은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을 수록 쉽게 분노하였고, 자기애 점수가 낮고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을수록 더 우울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주로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NPI로 측정된 만큼,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자기개념 명료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이 분노 경험 및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경험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아직까지 자기애 하위유형에 따른 자기개념 명료성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 유형과 수준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 집단, 외현적 자기애 집단, 비자기애 집단(통제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의 집단을 자기개념 명료성 수준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자기개념 명료성 수준, 자기애 하위 유형에 따라 부정적 정서특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 집단이 비자기애 집단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일 것이며,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외현적 자기애 집단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일 것이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 집단의 자기개념 명료성이 더 낮을 것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노 정서관련 변인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선행 연구들 중에서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 중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집단이 분노

를 더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Stuck, & Sporer, 2002), 내현적 자기애 집단과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 중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집단에서 분노관련 측정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실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하였고, 성격특성 및 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측정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의 안내문을 질문지에 명시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수업시간 후에 강의실에서 작성되었으며, 설문지에 응답하는 참가자에게는 성적 평가에 추가적인 이익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연구목적에 동의한 사람만이 참여하였다. 이 중 남자가 229명, 여자가 127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2.1세로 범위는 만 18세에서 29세까지였다.

도구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황순택(1995)이 DSM 성격장애에 대한 한국 임상가들의 진형성 평정자료를 분석하여 구인 타당화 방식에 의해 제작된 척도이다. 성격장애들에 대한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별진단을 정교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공유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 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7점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황순택(1995)이 보고한 내적 일관성은 .68이었으며, 한수정(1999)의 7점 척도 방식에서는 .88로 보고되었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hk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였는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 중심성(9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 고유요인은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자기애 유형의 공통요인(이하 CNS23)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이하 CNS145)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내적 일관성은 .91이었고, 각 요인별로는 순서대로 .92, .82, .78, .84, .80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전체 문항의 구성은 신체적 공격행동(9문항), 언어적 공격행동(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보고한 내적 일관성은 .86이었으며, 5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한국판 Zung 우울척도(한국판 SDS).

Zung(1965)이 개발한 척도로 우울증의 정서, 생리적 증상, 심리적 증상을 기술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여, 4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반분신뢰도 .73-.74 내적 일관성 .79-.80이었고, BDI와의 상관은 .70이었다.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

Campbell 등(1996)이 개발한 것이다.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진 12문항의 척도로서, 자기개념이 어느 정도 명확한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문항 예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자주 변한다.’,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등이다.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하 12점에서 최대 60점을 받을 수 있다. 5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였고,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여 이수현(2005)이 보고한 내적 일관성은 .74였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전경구, 한덕용,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

을 사용하였다. STAXI-K는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와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상인 분노억제(Anger-In)(8문항), 분노표출(Anger-Out)(8문항), 분노통제(Anger-Control)(8문항)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내적 일관성은 상태분노 .93, 특성분노는 .82였으며,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는 각각 .73, .78, .79였다(전경구 등, 1997).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상태분노는 .19, 특성분노가 .81이었으며,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는 각각 .71, .67, .82였다(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1998).

적대적 자동적 사고 척도(Hostile Automatic Thought Scale; HATS).

Snyder, Crowson, Houston, Kurylo와 Poirier (1997)에 의해 적대적인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신체적 공격성(11문항), 타인비하(10문항), 보복(9문항)이라는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Snyder 등(1997)의 연구에 따르면 HATS의 내적 일관성은 .94였고, 각 요인별로는 신체적 공격성이 .92, 타인비하가 .88, 보복이 .91이었다. 이 척도는 서수권(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번안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다음과 같다: 총점 .96, 신체적 공격성 .89, 타인비하 .91, 보복 .91.

집단 구분과 자료 분석

선행연구(박세란, 2005)의 집단구분방법을 참조하여 NPDS와 CNS145를 이용해 내현적 자기에 집단과 외현적 자기에 집단을 구분하였다. 외현적 자기에 집단은 전체자료에서 NPDS 점수가 상위 20%이상(80점 이상)인 참가자 중 전체자료에서 CNS145 점수가 30%이하(61점 이하)인 참가자로 선발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전체자료에서 NPDS점수가 상위 20% (80점 이상)인 참가자 중 전체 자료에서 CNS 145점수가 상위 30%이상(78점 이상)인 참가자로 선발하였고, 통제집단은 전체자료에서 NPDS 점수가 하위 20% 이하(53점 이하)인 참가자로 선발하였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27명(남 18명, 여 9명), 외현적 자기에 집단은 32명(남 23명, 여 9명), 통제집단은 54명(남 32명, 여 22명)이 선발되었다. 각 집단의 성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113)=1.47, ns$. 그리고 하위 집단별로 비교했을 경우에도 성별 구성에서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외현; $\chi^2(1, N=59)=.19, ns$, 내현-통제; $\chi^2(1, N=86)=1.39, ns$, 외현-통제; $\chi^2(1, N=81)=.42, ns$.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해 구분된 내현적 자기에, 외현적 자기에, 통제군의 세 집단에 대해 자기개념 명료성,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 공격성(AQ-K), 적대적 자동적 사고(HATS), 우울(SDS)점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선발된 집단의 자기에 점수들과 자기개념 명료성 점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가설 검증에 더하여 자기개념 명료성 점수로 외현적 자기에 집단을 구분한 집단간 차이 검증을 시행하였다. 외현적 자기에 집단과 통제집단 중 자기개념 명료성 상하집단은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SCC) 점수 상위 50%집단(36점 이상)과 하위 50%집단(35점 이하)으로 구분하였다. 50%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자기개념 명료성이 병리적 척도가 아니고, 자기개념의 일반적인 속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였다면 추가적인 분석에서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집단과 통제집단을 모두 자기개념 명료성 상/하 집단으로 구분해보려고 하

표 1. 각 집단별 자기에측정치 및 자기개념 명료성의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내현적 자기에 (n=27)	외현적 자기에 (n=28)	통제 (n=53)
NPDS	86.2(8.6)	82.2(5.3)	42.8(6.2)
CNS총점	157.6(11.1)	111.9(11.9)	92.4(16.1)
CNS145	97.9(8.4)	59.3(6.4)	56.6(12.4)
SCC	29.6(4.8)	36.8(6.2)	38.8(5.2)

NPDS: 자기에성 성격장애 척도, CNS: 내현적 자기에 척도, CNS145: 내현적 자기에 고유 요인, SCC: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

였으나,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거의 모든 집단구성원이 자기개념 명료성 하 집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상 집단에 포함된 3명도 거의 평균에 근접한 점수를 보였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에집단은 단일 집단으로 하였다. 그래서 외현적 자기에 집단과 통제집단만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명료성 상/하를 구분해서,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 공격성(AQ-K), 적대적 자동적 사고(HATS), 우울(SDS)점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각 집단별 정서특성 비교

표 2에 소개한 변량분석결과에 따르면, 분노통제를 제외한 모든 측정치에서 집단별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SDS; $F(2, N=113)=16.469, p<.001$, SCC; $F(2, N=113)=26.084, p<.001$, AQ-K; $F(2, N=113)=42.205, p<.001$, HATS; $F(2, N=113)=22.871, p<.001$, 상태분노; $F(2, N=113)=45.919, p<.001$, 특질분노; $F(2,$

$N=113)=23.813, p<.001$, 분노통제; $F(2, N=113)=.147, ns$, 분노표출; $F(2, N=113)=19.288, p<.001$, 분노억제; $F(2, N=113)=40.218, p<.001$. 그리고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내현적 자기에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공격성 총점은 내현집단과 외현집단이 모두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자기에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공격성 측정도구인 AQ-K의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감은 자기에 하위 유형간 차이는 없었지만, 적대감은 내현적 자기에 집단, 외현적 자기에 집단, 통제집단 순으로 높았다. 적대적 자동적 사고도 총점은 자기에 하위 유형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적대적 자동적 사고 측정도구인 HATS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공격이나 보복에서는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타인비하는 내현적 자기에 집단, 외현적 자기에 집단, 통제집단 순으로 높았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에서는 상태분노는 두 자기에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며, 특질분노는 내현적 자기에, 외현적 자기에, 통제집단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2. 내현적 자기애집단, 외현적 자기애집단, 통제집단의 정서 측정치 평균

	내현적 자기애 (n=27)	외현적 자기애 (n=32)	통제 (n=54)	F	Scheffé
SDS	46.5(8.6)	36.4(6.4)	37.4(7.3)	16.469***	내현>외현=통제
SCC	29.6(4.8)	36.8(6.2)	38.8(5.2)	26.084***	통제=외현>내현
AQ-K	76.8(11.4)	72.5(13.6)	54.6(10.0)	42.205***	내현=외현>통제
신체적 공격	22.7(6.2)	22.6(6.2)	17.3(4.6)	12.311***	내현=외현>통제
언어적 공격	13.5(2.8)	15.1(3.8)	10.3(3.0)	22.426***	내현=외현>통제
분노감	15.5(3.7)	14.5(3.5)	10.2(2.6)	30.740***	내현=외현>통제
적대감	25.1(4.7)	20.6(4.7)	15.8(4.2)	39.762***	내현>외현>통제
HATS	71.4(24.9)	60.3(24.6)	41.3(12.5)	22.871***	내현=외현>통제
신체적 공격	18.4(8.2)	16.1(7.0)	11.5(2.9)	13.909***	내현=외현>통제
타인비하	29.1(8.0)	24.0(10.1)	16.7(6.8)	22.691***	내현>외현>통제
보복	21.7(9.4)	18.6(8.8)	12.0(4.1)	19.045***	내현=외현>통제
STAXI-K					
상대분노	25.9(7.7)	24.0(4.8)	15.5(3.3)	45.919***	내현=내현>통제
특질분노	17.8(6.1)	14.6(3.6)	11.5(2.2)	23.813***	내현>외현>통제
분노통제	21.0(5.3)	21.1(4.4)	21.5(4.5)	.147	내현=외현=통제
분노표출	17.4(4.4)	16.4(3.5)	12.6(3.1)	19.288***	내현=외현>통제
분노억제	23.3(3.2)	16.8(4.4)	15.1(3.8)	40.218***	내현>외현=통제

부등호는 Scheffé 검증에 의한 평균치의 집단간 차이 여부를 나타냄. 부등호가 큰 쪽이 $p < .05$ 수준 이상에서 더 높은 평균치임.

괄호 안은 표준편차

*** $p < .001$

분노 표현 경향성을 살펴보는 변인들을 살펴 보면, 분노통제에서는 세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분노표출에서는 두 자기애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며, 분노억제에서만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외현적 자기애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자기애 집단은 하위 유형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측정치에서 통제집단보

다 더 많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애 하위 유형별로 비교했을 때,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더 많은 적대감을 보이고, 타인비하적 사고를 더 자주하며, 만성적인 분노감이 더 높은 반면, 분노표현은 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료성에 따른 자기애 하위집단의 부정적 정서 특성

표 3에 소개한 변량분석결과에 따르면, 분노통제를 제외한 모든 측정치에서 집단별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SDS; $F(4, N=113)=10.434, p<.001$, AQ-K; $F(4, N=113)=30.371, p<.001$, HATS; $F(4, N=113)=14.088, p<.001$, 상태분노; $F(4, N=113)=23.887, p<.001$, 특질분노;

$F(4, N=113)=12.812, p<.001$, 분노통제; $F(4, N=113)=.916, ns$, 분노표출; $F(4, N=113)=9.971, p<.001$, 분노억제; $F(4, N=113)=20.818, p<.001$.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 집단과 외현적 자기애 집단 중 자기개념 명료성 상/하 집단을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현적 자기애 집단 중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집단은 내현적 자기애 집단을 포함한 나머지 집단보다 언어적 공격성이 가장 높았다.

표 3. 자기개념 명료성에 따른 자기애 하위 집단의 정서 측정치 평균

	내현적 자기애 (n=27)	외현적 자기애 (n=28)		통제집단 (n=53)		F
		명료성 상 (n=16)	명료성 하 (n=12)	명료성 상 (n=41)	명료성 하 (n=12)	
SDS	46.5(8.6) _a	36.0(7.5) _b	37.0(4.6) _b	35.9(6.8) _b	42.2(6.7) _{ab}	10.434 ^{***}
AQ-K	76.8(11.4) _a	64.7(10.6) _b	83.0(9.9) _a	54.0(9.8) _b	56.9(10.9) _b	30.371 ^{***}
신체적 공격	22.7(6.2) _a	19.0(4.0) _b	27.4(5.5) _{ab}	17.2(4.3) _b	18.0(6.1) _b	11.696 ^{***}
언어적 공격	13.5(2.8) _b	13.4(3.5) _b	17.4(2.9) _a	10.3(3.4) _b	10.4(3.2) _b	15.026 ^{***}
분노감	15.5(3.7) _a	13.5(3.0) _{ab}	15.8(3.6) _a	10.0(2.7) _c	10.9(3.9) _{bc}	16.812 ^{***}
적대감	25.1(4.7) _a	18.6(3.9) _{bc}	23.1(4.6) _{ab}	15.5(3.8) _c	16.7(5.3) _c	22.959 ^{***}
HATS	71.4(24.9) _a	51.6(20.2) _{ab}	71.9(26.0) _a	40.5(12.5) _b	44.3(12.6) _b	14.088 ^{***}
신체적 공격	18.4(8.2) _{ab}	13.2(3.8) _{bc}	20.0(8.5) _a	11.3(2.6) _c	12.3(3.8) _c	10.071 ^{***}
타인비하	29.1(8.0) _a	21.5(10.7) _{ab}	27.4(8.7) _a	16.1(6.7) _b	18.7(7.0) _b	12.799 ^{***}
복수	21.7(9.4) _a	15.6(6.8) _{ab}	22.6(9.9) _a	11.9(4.2) _b	12.1(3.9) _b	11.673 ^{***}
상태분노	25.9(7.7) _a	22.6(3.8) _a	25.9(5.5) _a	15.4(3.2) _b	16.1(3.7) _b	23.887 ^{***}
특질분노	17.8(6.1) _a	14.4(3.3) _{ab}	14.8(4.1) _{ab}	11.0(1.5) _b	13.2(3.3) _b	12.812 ^{***}
분노통제	21.0(5.3)	21.2(4.6)	20.9(4.2)	20.9(4.4)	23.7(4.4)	.916
분노표출	17.4(4.4) _a	16.1(3.4) _{ab}	16.9(3.9) _a	12.3(2.9) _b	13.6(3.4) _b	9.971 ^{***}
분노억제	23.3(3.2) _a	16.1(4.6) _b	17.8(4.3) _b	14.8(3.6) _b	16.2(4.4) _b	20.818 ^{***}

영문 아래첨자는 Scheffé 검증에 의한 평균치의 집단 간 차이 여부를 나타냄. 공유하는 철자가 없는 집단 간에는 $p<.05$ 수준 이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임.

괄호 안은 표준편차

*** $p<.001$

반면,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외현적 자기에 집단 중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집단을 포함한 모든 집단보다 더 우울하며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중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집단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중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은 집단보다 더 공격적이며, 신체적 공격에 대한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에 집단 중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은 집단은 상태분노 수준에서 통제집단보다 높을 뿐 나머지 변인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가장 우울하고 분노를 억제한다. 둘째, 외현적 자기에 집단 중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집단은 언어적으로 공격적이다. 셋째,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중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공격적이며, 신체적 공격에 대한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한다. 넷째,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중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은 집단은 분노관련 변인에서 통제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의 구분되는 부정적 정서특성을 알아보고, 그에 추가하여 자기개념 명료성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 경험 및 표현 그리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에 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집단보다 더 적대적이지만 분노는 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료성 수

준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는 외현적 자기에 집단에서만 나타났고, 통제집단에서는 자기개념 명료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모두 낮은 명료성의 수준에 따른 공격성이 차이에 대한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외현적 자기에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많은 공격성을 보였으나,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은 외현적 자기에 집단은 통제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NPI를 활용한 Stuck과 Sporer (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적대적 자동적 사고에서도 이런 경향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비록 표본이 작아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차이는 신체적 공격성 하위척도에서만 나타났지만, 외현적 자기에 집단 내에서 명료성 하 집단이 명료성 상 집단보다 높은 적대적 사고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Bushman과 Baumeister(1998)가 주장한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반응을 “지각된 위협”이 매개한다는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기개념이 모호할수록 자신의 웅대화된 자기상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넓어지고 부정적 피드백에 더 예민해져 위협을 크게 지각하고 적대적 사고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내현적 자기에가 외현적 자기에보다 분노억제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자신을 적대적이라고 보고하지만 관찰자 평정에서는 적대적이라고 보고되지 않고,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자신을 적대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지만 관찰자 평정에서는 다소 적대적으로 보고한다는 연구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Rhobbins, & Dupont, 1992). 자기개념 명료성 수준은 내현적 자기에 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의 속성으로 목표 없음과 구체적이지 못함(Akhtar & Thompson, 1982), 자기 확신의 부족(Wink, 1991), 목표 불안정(강선희와 정남운, 2002)이 언급되었던 것과 일관되는 결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자기개념 명료성은 내현적 자기에 집단의 병리적 특징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특징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기에 하위 유형간의 이러한 차이는 선행 연구에서 다뤄진 적이 없으므로 반복 검증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인관계 상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행동이 다를 것이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경우, 부정적 피드백에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등 즉각적인 분노반응을 보이는데 반해(Bushman & Bauneister, 1998; Kernis & Sun, 1994; Morf & Rhodewalt, 1993),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반응은 보다 광범위하게 지속되며 즉각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여 대인관계상의 갈등을 더 많이 빚을 가능성이 있고,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분노를 억압하여 다른 양상의 정서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셋째,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고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경우,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은 경우보다 공격적이다. 넷째,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중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은 집단은 부정적 정서 경험 및 표현에서 통제집단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참가자들이 모두 대학생이었고 주로 설문지에 의해서만 표본이

모집되었으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일반인들과 자기에성 성격장애자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표집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관찰자 평정이나 전문가의 면접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 이전 연구에서 두 자기에 하위유형의 경우 적대감에서 자기보고와 관찰자 평정(Rhobbins와 Dupont, 1992)이 불일치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적대감의 경험 및 표현과 관련하여 자기보고와 관찰자 평정의 차이를 다루는 후속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자기에 하위유형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많지 않고 국내 연구는 더욱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의 문화적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내향성이나 집단주의와 같은 성향들 역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박세란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55-266.
- 서수균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이수현 (2005). 섭식문제가 있는 여대생의 완벽

- 주의 패턴과 자기 지식 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1998).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한국심리학회: 건강, 3, 18-32.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한수정 (1999). 자기에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인지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khtar, S., & Thomp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revised)*. Washington, DC : Author.
- Baumeister, R. F. (1997). *Evil. Inside human violence and cruelty*.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ushman, B.,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83-549.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41-156.
- Carroll, L., Hoenigmann-Stovall, N., & Whitehead III., G. I. (1996).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narcissism. *Psychological Reports*, 79, 1267-1272.
- Chapman, A. L., Gratz, K. L., Brown, M, Z. (2006). Solving the puzzle of deliberate self-harm: The experiential avoidance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371-394
- Donahue, E. M., Robins, R. W., Roberts, B. W., & John, O. P. (1993). The evidence self: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roles on self-concept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34-846.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ickman, S. E., Watson, P. J., & Morris, R. J. (1996). Optimism, pessimism, and the complexity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4), 521-525.
- Kernis, M. H., & Sun, C. R. (1994). Narcissism and reactions to interpersonal feedbac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4-13.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psley, D., & Aalsma, M. C. (2005). An empirical typology of narcissism and mental health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corrected proofed available on line.
- Linville, P. W. (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 Linvil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Morf, C. C., & Rhodewalt, F. (1993). Narcissism and self-evaluation maintenance: Explorations in object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68-676.
- Mullins, L. S., & Kopelman, R. E. (1988). Toward and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4), 610-625.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0*, 590.
- Raskin, R., & Hall, C. S. (1981).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1), 66-80.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72-685.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21-231.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Sedikides, C., Rudich, E., Gregg, A.,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00-416.
- Snyder, C. R., Crowson, J. J., Houston, B. K., Kurylo, M., & Poirier, J. (1997). Assessing hostile automatic though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AT sca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477-492.
- Spei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pp. 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 Stuck,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 590-532.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446-462.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 원고접수일 : 2007. 2. 1.
게재결정일 : 2007. 5. 7.

Self-Concept Clarity and Negative Emotion in Young Adults with Covert · Overt Narcissistic Feature

Jun-Deuk Lee¹⁾

Su-Gyun Seo²⁾

Hoon-Jin Lee³⁾

1)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2)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Digital University

3)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wo narcissistic subtypes, overt and covert, in anger related emotions. The depression, anger, aggression, and hostile automatic thought were measured and compared. Also, the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on negative emotions was investigate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the Covert Narcissism Scale, the Self-Concept Clarity Scale, the Zung Depression Scale,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the Hostile Automatic Thought Scale,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were administered to 356 college students. Then, the covert and overt narcissists were selected by using the NPDS and CNS sco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overt narcissistic group showed lower self-concept clarity, and higher depression, hostility, hostile automatic thought of derogation, trait anger, and anger-repression than the overt narcissistic group. The overt narcissistic group showed more aggression when they had low self-concept clarity. However, the control group showed no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evels of self-concept clarity, and almost all covert narcissists showed lower self-concept clarity.

Keywords : covert narcissism, overt narcissism, self-concept clarity, anger, depression, aggression, hostile automatic thought